

— EIAK소식 —

통신기기 수출대책 간담회 개최

본회 통신산업협의회 (회장 : 박성규 대우통신(주) 사장)는 지난 9월 4일 무역구락부에서 통신기기 수출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본회 한규완부회장, 박성규 대우통신(주)사장, 상공부 남충우 전자정책과장, 통신기기업체 대표 등 2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남충우 상공부 전자정책과장은 국산 CATV기기의 판로를 확보해 주기 위해 CATV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일정비율의 국산기기 사용의무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밝히고 또한 통신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특허분쟁에 공동 대응하는 한편 국내 업체끼리의 과당경쟁 방지 방안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남과장은 이어 국제특허 분쟁 대응방안을 수립 본회와 전자부품연구소에 각각 특허협의회와 특허분석팀을 구성하는 한편 주요품목에 대한 특허지도 작성을 추진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 업계대표들은 해외시장에서 우리업체간의 과당경쟁을 벌이고 있는 위성방송수신기, 팩시필라 분야에 대한 해결방안을 공동 모색키로 했다.



국제 특허분쟁 전문가 양성 교육 개강

본회와 한국발명특허협회가 주최하고 매일경제 신문사와 특허청이 추진하는 특허전문요원 양성교육을 9월 1일 KOEX 발명장려관에서 개강식과 함께 시작됐다. 전자·정보산업 관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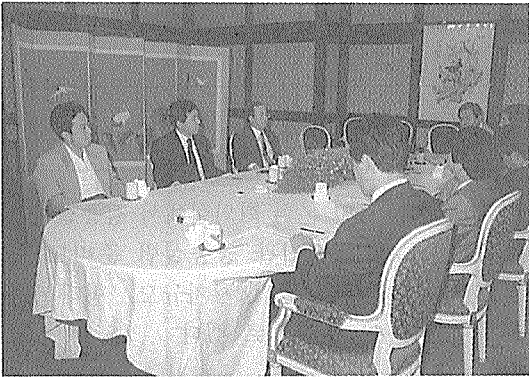


기업의 특허 실무자와 정부, 관련연구소 및 관련단체의 특허관계자 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작된 이번 특허교육은 오는 11월 17일까지 12주간 매주 화요일마다 실시된다.

자기미디어 산업협, 창립

본회는 지난 8월 7일 팔레스호텔에서 국내 자기테이프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제반문제를 업계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새한미디어, SKC, 금성사, SKM, 코오롱, 동양폴리에스터 등 6개사가 참여하는 산업협의회를 발족시켰다.

이날 창립총회에서는 초대회장으로 새한미디어의 한형수 부회장을 선출했으며,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업계가 당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국내외에서의 국내 업체간 과당경쟁을 방지하므로써 가격 경쟁력을 제고



하는데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앞으로 이러한 문제를 협의회를 통해 공동해결기로 했다.

또한 과당경쟁방지를 실현할 실무기구로 영업분과(위)를 구성하는 한편 해외시장 정보 및 기술정보를 상호교류함으로써 기술장벽에 공동으로 대처할 기술개발분과(위)를 곧 구성기로 합의했다.

가전산업협의회

지 난 8월 20일 동협의회 (회장 : 이현조 (주) 금성사 사장)는 팔레스호텔에서 (주) 금성사 서석영 상무 등 4개사가 참석하는 폐기물 재활용 대책 조찬 간담회를 개최하고 폐 가전 제품 재활용 및 처리지원 대책을 협의키 위해 일본의 사례 및 조사방문단 파견계획을 수립기로 했다.

동 협의회는 지난 8월 18일 회의실에서 가전 제품 불법유통 근절대책 간담회를 개최하고 밀반입제품 관련 제보자 보상제도 등 근본적인 단속이 될 수 있는 방안을 협의 했다.

HA 산업협의회

동 협의회(회장:삼성전자(주) 정보통신부문 정용문 사장)는 HA국내 표준규격 제정과 관련회의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HA 통

신분과(위)에서 통신서비스 범위를 협의하고 HA 가전분과(위)에서는 가전 AVC계 서비스 범위를 설정기로 했다.

전자부품산업협의회

변 성기 분과위원회 (위원장:오성전자산업(주) 유병화 사장)는 지난 8월 17일 삼성전기(주) 회의실에서 수요업체 4개사 (금성사, 삼성전기, 대우전자부품, 두고전자)와 공급업체 (포커스, 정화) 등 6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FBT 용 Double Focus Volume과 Ployester Film에 대한 표준화 규격을 확정하고 조기 국산화에 대해 협의 했다.

디 스피레이 분과 위원회 (위원장 : 삼성전관(주) 박경팔 사장)는 지난 8월 25일 삼성코닝(주) 등 5개사 수요 공급업체가 Panel, Funnel 표준화 규격을 일부수정 개정하고 국산화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CATV기기 산업협의회

동 협의회 (회장 : 동양텔레콤(주) 배석재 사장)는 지난 8월 19일 팔레스호텔에서



동협의회 회원사 12개사가 참석한 가운데 한국형 CATV 공동개발과 관련 조찬간담회를 개최 했다.

지 난 8월 17일 동협의회는 CATV기기 부품 국산 종합카다로그 발간 회의를 본회 회의실에서 개최하고 세부계획을 논의 했다.

동 난 8월 28일 동협의회는 부품연구소에서 한국형 CATV시스템 공동개발 참여 업체 계약·체결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고 의견을 교환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서 개발 희망업체의 신청을 받은 결과 망감시장치부문에 동향텔레콤, 금성

정보통신, 삼성전기 등 12개사가 가입자 관리 장치부문에 금성알프스전자, 대우전자 등 13개사가 참여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컴퓨터산업협의회

지 난 8월 11일 본회 회의실에서 김종길사장은 EMI 검정기관 공동설립 준비모임을 갖고 사업계획서 발표 및 투자규모, 형태 등을 조정 수립하여 추진키로 했다.

지 난 8월 21일 내외반도체(주) 회의실에서 태일정밀 오권석 차장 등 10명이 참석 PC 주기판 실무자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회의에서는 23회 한국전자전 공동참가 준비, PC 주기판 종합카다로그 발간, 해외시장개척기금 활용방안 모색, 해외전시회 참관 (COMDEX Fall '92) 등을 논의 했다.

